

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시기 늦춰달라”

인접 도시 공동화·수질악화 가속화 지적...군산상의·시민단체 중단 촉구 김제와 2호 방조제 관할권 법정다툼 속 수변도시까지 확산 불가피 할 듯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인접 지자체와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수변도시 1호 1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역 용지 6.6㎢ 부지에 조성된다. 10km 길이의 제방을 쌓고 바다를 매운 뒤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지자체 간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첫 번째 이유로 김제시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수변도시 관할권으로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관할

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새만금 일대 도시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계획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면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 인구가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또 새만금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도시가 조성되면 수질이 더욱 악화해 궁극적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늦추는 대신 분쟁 소지가 없는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잠머리지구 등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수변도시 조성 반대 활동에 가세했다.

군산상의 등 13개 단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수변도시 조성은 이명박



군산상의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새만금개발청을 향한 방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군산시 제공>

정부 시절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6등급인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열악한 정수여건의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새만금 2호 방조제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곳에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분쟁을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개발청을 향한 방문에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군산·박곡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밥상’ 브랜드 강화 주력

군, 계절 특색있는 음식으로 차별화

고창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 개발에 주력한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의 2020년 사업 설명회가 전문컨설팅업체와 지역 외식업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은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고창군의 식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지역 대표 밥상 계획 등이 마련됐다.

또 외식업체 맞춤형 고급 역량강화 교육, 차별화된 콘셉트로 대중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가 추진된다.

특히 ‘고창 밥상’ 참여 외식업체만의 계절별 특별 레시피 보급을 통해 누구든 참여 외식업체를 방문하면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땅(地), 물(水), 불(火)을 주제로 하는 고창군의 대표 맛집 18곳을 선정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을 선보였다.

여기에 각 업체만의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낸 스토리텔링 개발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홍보책자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밥상’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형초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에 ‘하림로’ 생겼다

시, 하림그룹 지역발전 기여에 지지

익산시 중앙로 일부 구간에 ‘하림로’가 탄생했다. 익산시는 시내 중앙로 일부 구간을 하림그룹의 이름을 딴 ‘하림로’〈사진〉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림로’는 익산의 제1호 명예도로로, 하림지주회사 본사가 있는 동산병원사거리에서 익산역사거리까지 1.9km 구간이다.

익산시는 하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명예도로를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림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익산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이다. 전북지역에 하림과 하림식품 등 17개 계열사 본사와 55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림푸드 트라이앵글 조성에 80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1500여개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발효·미생물 실감콘텐츠 제작 순창군, 즐기는 놀이공간 만든다

월드푸드사이언스관 10월 준공...세계 가공식품 체험관도

순창군은 지역 특화산업인 발효·미생물에 관한 가상·실감 콘텐츠를 즐기는 놀이공간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놀이공간은 고추장민속마을 내 10월 준공 예정인 월드푸드사이언스관에 마련한다. 이곳에서는 발효 및 미생물의 생성·증식과정 등을 가상·증강현실을 적용해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보여준다.

월드푸드사이언스관에서는 이외에도 세계의 가공식품과 음식, 식품 영양과 소화, 미래의 주방, 가상현실 속 식품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4차 산업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를 응용해 발효·미생물에 관한 즐거움과 놀라움을 접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양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이 고추장민속마을 내 월드푸드사이언스관에 구축한 순창 발효과학 실감콘텐츠 놀이공간 내부 모습.

남원시 “21대 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제정해야”

전체부지의 44% 토지보상 완료...학교시설 강의동 등 착공 가능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정·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이달 기준 전체 부지의 44%인 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마무리 상태로, 학교 설립 및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의 이같은 행보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확고하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공공의대 설립부지 전경. <남원시 제공>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